

Do You, Paul, Take Ralph...

98 5/2 All 25

다는 것은 교회가 동성애를 포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그는 결론짓는다.

中世교회서 동성 결혼을 인정?

美 역사학자 새로운 著書서 주장, '말도 안 된다' 反論도 거세

예일대의 존 보스웰은 기독교와 동성연애 연구로 이름높은 中世 역사의 대가다. 또 게이이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12년 전 어느 날 자신의 우편함에서 초기 가톨릭 교회의 同性간 결혼식을 기록한 문서 사본 같은 것을 발견하면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 뒤로 연구를 위해 유럽의 큰 도서관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典禮문서 80건을 찾아낸 그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죄악으로 간주해 온 동성애가 사실은 한때 용인됐었을 뿐 아니라 축복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결과 탄생한 책이 바로 「前近代 유럽의 同性 결혼」(假題·Same-Sex Unions in Premodern Europe, 412쪽, Villard Books刊, 25달러)이다.

보스웰의 연구는 그 책의 출간 전부터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홍보전이 시작됐다. 역시 예일대 출신인 시사만화가 개리 트루도는 보스웰의 책을 중심으로 「둔스베리」 만화 1주일치를 만들었다.

보스웰의 책은 대부분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중세 말기까지의 결혼史를 다루고 있다. 그의 목표는 「형제 자매」 같은 용어가 초기 기독교 개종자와 형제자매, 이성 배우자, 그리고 동성 연인들에게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가를 보여 주자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前近代 유럽인들에게 결혼이란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性的 매력과도 거의 무관한, 가문끼리의 결합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자는 것이다.

·보스웰이 은연중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현대적 의미에서 봐도 동성연애만이 진정으로 로맨틱하다는 것이다. 재산이나, 政略的 목적 또는 자손을 얻기 위해 결혼하는 이성연애자들과는 달리 동성연애자는 그런 외적 요인을 따지지

않고 사랑했다. 동성연애자만이 「동반자」로서 좀더 순수하고 좀더 열정적인 사랑을 발전시키기 쉬웠다는 암시인 것이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바로 기독교 聖人들의 이야기라고 그는 주장한다.

가장 논란이 많은 항목을 보자. 기독교에서 同性의 특정 聖人을 두 사람씩 묶어 존경하는 것은 게이 섹스라고까지는 못해도 적어도 동성애의 매력을 儀式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그가 대표로 내세우는 것은 4세기의 그리스 순교자 聖세르게와 聖바쿠스. 이 두 병사는 「형제」(동성애 상대)였다는 것이 보스웰의 해석이다. 로마의 여성 순교자 페르페투아와 펠리시타스, 그리고 使徒 베드로와 바울도 그같은 「聖人 쌍」 대열에 넣는다. 심지어는 예수와 예수가 「총애하는 사도」 요한도 틀림없이 「특별한 관계」였을 거라고 그는 적고 있다.

이같은 同性의 짝들이 儀式에서 들먹여졌

보스웰의 큰 문제는 증거의 편향적 해석. 그가 인용하는 典禮 기도는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각종 典禮集에 나온다. 모두 비잔틴 전통(주로 그리스와 슬라브)에서 나온 것이다. 典禮는 초기 교회의 이성간 결혼의식을 닮았다. 그러나 원문에는 性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의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초점이다.

보스웰을 비판하는 측은 그가 찾아낸 것은 가톨릭과 正教會 신학자들이 수세기 동안 논평해 온, 이미 잘 알려진 典禮集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보스웰이 그리스語로부터 「同性 결혼」이라 번역한 것은 원문에서는 다투던 형제간의 화해, 養子 結연, 또는 기타 관계를 갖기 위한 「형제애」 또는 「우애」 의식일 뿐이지 동성결혼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스웰이 알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초기 비잔틴 기독교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로마의 예수회 신학자 로버트 F. 태프트는 말했다. 「새로운 것은 그 의식에 대한 해석일 뿐인데 그나마도 틀렸다. 비잔틴 시대에 동성연애자는 교회법으로는 2-3년의 苦行, 민간법으로는 고문·去勢·死刑 등에 처할 수 있었다. 그런 마당에 정교회가 동성간의 결혼을 승인하는 의식을 공식적으로 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부 학자들은 로마 교회도 그런 의식을 거행했다는 보스웰의 주장을 문제삼는다. 中世法 전문가인 캔자스대의 역사가 제임스 A. 브런디지는 보스웰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주장은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보스웰이 인용하는 儀式을 연구해 보지는 못했지만 「법조문으로 볼 때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형제애」 의식이 때때로 동성연애를 호도하는 수단으로 쓰였을지 모른다는 것은 진짜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애초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어쨌든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해서 교회가 게이의 결혼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Kenneth L. Woodward

Boswell: 'This Is Too Amazing'

著者 보스웰 '너무 놀라운 일'

보스웰은 작년 가을 ABC 「데이 원」의 존 호켄 베리와 인터뷰에서 자기 가 쓴 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한동안 한밤중에 일어나 생각했다.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야!』 틀린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갖고 있던 원고 사본을 보고 제대로 돼 있다는 걸 확인하곤 했다. 틀림없는 사실이야...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 특히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늘 금지돼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 儀式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다.

물론 교회는 당신 주장을 목살할텐데...

물론 부인이야 할 수 있겠지만 反證을 대지는 못할 것이다.

